

##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와 <분통가(憤痛歌)>에 대한 비교 고찰

—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

김윤희\*\*

<차례>

1. 서론
2. 창작 동기를 통해 본 두 작품의 접점과 거리
3. 경계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그 표현 미학의 차이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래 새롭게 실체가 확인된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를 <분통가(憤痛歌)>와 비교 분석하여 만주라는 변방에서 여성과 남성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사 문학으로 표현한 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두 자료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현실 인식과 표현 미학의 접점과 차이에 주목해 보았는데 만주 망명이라는 극단의 선택과 고난 속에서 가사 문학으로 내적 고뇌를 발산하고 소통하면서 현실을 견디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분통가>는 남성으로서 중시했던 유교 관념이나 역사 의식에 기반하여 구성된 작품으로 교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반면 <해도교거사>는 장면의 구체성이나 형상화의 꺾진성 등이 두드러진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해도교거사>의 서사에는 일상적인 삶이나 인간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여성의 감수성이 녹아 있어 <분통가>와는 다른 미감(美感)이 발견되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8S1A5A2A02069570)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다. 또한 <해도교거사>에 보이는 독립을 염원하는 방식은 유대감에 기반한 독려의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관념적인 상상으로 독립 이후의 사회를 형상화한 <분통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지하듯 만주 망명을 선택한 이들은 국가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변방인이자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가문과 이웃들과 지속된 교류와 결속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익숙했던 가사 문학은 이 지지대의 일부이자 소통의 매개로 기능했던 문화적 양식이었다. 여성들과의 교류 및 연대 의식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며 희망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사 문학이 중요한 정서적·언어적 매개물로 기능했고 이 문화적 흐름에 남성도 참여했음이 두 작품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에 보이는 창작 동기 및 현실 인식의 유사성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해 생성된 문학적 특질의 차이는 추상적 이념과 구체적 현실의 교차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재조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만주 망명이나 독립 운동의 역사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 온 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보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 동안 만주 망명의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된 여성들의 역할과 기록 문화의 의미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점차 복원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해도교거사>, <분통가>, 만주 망명 가사, 경계인, 여성, 남성

## 1. 서론

본 연구는 근래 새롭게 실체가 확인된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를 <분통가(憤痛歌)>와 비교 분석하여 만주라는 변방에서 여성과 남성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사 문학으로 형상화한 특질의 차이와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만주 망명 가사는 근래 학계에서 범

주화 및 분석이 이루어진 일군의 작품들을 지칭하는데<sup>1)</sup> 그 동안 산재해 있거나 작자 미상이었던 자료들이 심도 있는 고증을 통해 고전문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범주화되어 재평가 받고있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현상으로 보인다. 고순희의 정리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만주 망명 가사는 7편, 만주 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6편으로 총 13편인데 이 작품들 중 7수가 안동 명문가 여성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안동의 지역성이 중요하게 논의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해도교거사>라는 작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는데 확인 결과 <간운스>, <조손별사>의 작가인 김우락(金宇洛, 1854~1877) 여사가 만주에서 창작한 가사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김우락 여사의 손부(孫婦)인 허은(許銀, 1907~1997) 여사가 간직해오다가 현재는 (사)유교문화보존회의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유교문화보존회가 주관한 <안동, 한글을 간직하다 : 훈민정음 해례본 복각 전시 및 학술대회>(안동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017. 01. 14)에서 그 원본(原本)이 공개, 전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자료의 국어학적 가치가 학계에 먼저 보고되었는데 개화기 국어의 특징과 국내외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어휘, 안동 지역의 방언 등이 나타나 있는 작품임이 확인되었다.<sup>3)</sup>

이처럼 만주 망명 가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성호경은 기존에 소장하고 계시던 내방가사 자료가 만주 망명 가사임이 확인되어 세 자료의 원문과 특징을 학계에 소개하였다.<sup>4)</sup> <해도교거사>와 <정화가>

1)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박문사, 2014, 1~363쪽;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1~324쪽.

2)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 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5~29쪽.

3) 정연정·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론총』 제68호, 2016, 9~10쪽.

는 김우락의 작품이고 <정화답가>는 김우락의 남동생 김정락(金呈洛, 1857~1881)의 아내 영양 남씨(英陽 南氏, 1853~?)가 김우락의 <정화가>에 답을 한 가사인데 이러한 신자료 세 편의 보고로 인해 만주 망명 가사는 현재까지 총 16편이 되었고 <해도교거사><sup>5)</sup>의 새로운 이본 또한 확인된 셈이다. 김우락은 석주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의 부인인데 이상룡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혁신유림의 대표 인물로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만주로 자발적 이주를 감행한 분이다. 안동 지역의 유림들은 성리학적 의리를 실천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이른바 혁신유림들은 해외 망명을 통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 임청각(臨淸閣)의 종부가 되었는데 혁신유림이었던 남편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을 이어가자 김우락 여사도 가족을 이끌고 이에 동참하게 된다.

이 때 만주 망명을 함께 한 백하(白下) 김대락(金大洛, 1845~?)은 김우락의 큰 오빠인데 만주 망명 과정에서 기록한 글들이 『백하일기』를 통해 남아있다. 특히 김대락은 <분통가>라는 제목의 가사를 지었는데 이 자료는 필사본 『계축록』에 수록되어 문중에서 전해져 왔으며, 1972년 학계에 공개되었고 김대락의 일기가 국역되면서 상세한 주석 작업까지 이루어졌다.<sup>6)</sup> <분통가>는 1912년 9월 27일 일기에서 ‘국문작 분통가 일편’

4) 성호경·서혜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해도교거사>·<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집,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쪽. 이 논문에 소개된 <해도교거사>의 분량은 756구 335행이다.

5) 성호경이 제시한 자료에는 제목이 <해도교거사>로 표기되어 있고 정연정·천명희의 경우 <해도□거사>로 표기되어 있는 자료를 <해도교거사>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해도교거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며 인용문의 경우 원문이 확인되는 <해도□거사>를 참조하되 누락된 부분이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성호경의 자료도 참조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402~424쪽. <분통가>의 원문과 주석은 이 책의 402~424쪽에서 확인되며 본고에서 인용하는 <분통가>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문은 1913년 6월 4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1912년 작사를 시작하여 틈틈이 보완한 후 1913년에 완성된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분통가 후지(後識)>의 내용을 살펴보면 1912년에 창작은 했으나 기록을 1913년에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7)</sup>

<분통가>의 주제는 기존 연구에서 ‘망국의 한’, ‘망명의 사연’, ‘영웅장사와 의열사의 찬송’, ‘독립전쟁과 광복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고 1910년대 초기 독립 운동 의식을 대변한 문건으로 평가되었다.<sup>8)</sup> 또한 민족의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과 청년학도들의 독립투쟁 의지를 고취하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한 혁신유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9)</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이러한 주제 의식이 여성의 시각에서 형상화된 <해도교거사>와의 비교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해도교거사>의 경우 이본이 확인된 만큼 두 자료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sup>10)</sup> 우선 본고에서는 <분통가>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표현 양상의 차이라는 거시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해도교거사>는 1911년 가을 유하현(柳河縣) 영춘원(永

---

원문과 주석 또한 이 책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7)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 후술됨.

8)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와 분통가』, 『안동역사의 유교성향(于史 趙東杰 저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248~250쪽.

9) 고순희, 『만주 독립운동가 김대락의 <분통가>』, 『오늘의 가사문학』 13, 고요아침, 2017.

10) 안동시 유교문화보존회에서 보존 중인 <해도교거사>의 사진 파일은 천명희 선생님을 통해 필자가 건네 받아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성호경 선생님께서 공개하신 <해도교거사>의 복사본은 1989년 영남대학교의 조대봉 선생님을 통해 입수하였는데 조대봉 선생님의 외조모가 안동 임하면 출신이신 것으로 보아 가내 전승이 이루어진 자료로 보인다. 필자가 이 두 이본(異本)을 검토해 본 결과 자구(字句)의 출입과 단락의 차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상호 보완 등과 같은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도교거사>의 원문과 현대어역을 공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본과의 차이 또한 정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春源)에 정착한 직후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만주 망명 가사 중 최초의 작품에 해당하고 안동에서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망명의 경로와 만주 영춘원에 이르는 정착의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나타나 있다.<sup>11)</sup> 앞서 언급했듯이 <분통가>는 1912~13년경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에도 고향에서 떠나 서간도에 도착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만주 망명 가사 작품들 중 남성의 작(作)은 <분통가>가 한 편인데 이번에 확인된 <해도교거사>는 여성들의 작품들 중 유일하게 만주에 이르는 과정과 심회가 기록되어 있으며 현실에 대한 인식과 울분 또한 구체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두 작품은 만주 망명 가사들 중에서 흥미로운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19세기 이후 남성들이 자신과 관련된 서사를 가사로 남긴 작품들을 살펴보면 내부로의 몰입이나 침잠보다는 외부로의 발산 또는 소통을 의식한 글쓰기의 성격을 보이고 있고 가문 내 문학 소통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사 장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했음이 확인된다.<sup>12)</sup> 김우락은 <분통가>를 남긴 김대락의 여동생인데 부친 김진린(金鎭麟, 1825~1895)은 의성 김씨 30대 손으로 안동 내앞마을의 명문가에서 성장하였다. 근래 김대락과 김우락의 여동생이자 독립 운동가인 김락(金洛, 1863~1929)이 창작한 가사 <유산일록(遊山日錄)>도 확인되었는데 이 가사에는 고향에서 언니였던 김우락을 그리워하는 표현이 발견된다.<sup>13)</sup> 또한 이 작품에도 일제의

11) 정연정·천명희(2016), 위의 논문, 9~10쪽.

12)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슬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98~99쪽.

13) 김윤희, 「안동의 여성 독립 운동가 김락의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22,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 연구소, 2017.

압제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의성 김씨 가문에서는 이처럼 가사를 통해 경험이나 감정을 형상화하는 문화가 지속되어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주 망명 가사에서 이들 가문과 연계된 가사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 또한 향후 살펴보아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주지하듯 이들은 만주로 망명한 후에 국가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변방인이자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 속에서 가문 단위 내의 교류와 결속은 변방에서의 삶을 견디게 해주는 정서적 위안이자 경계를 넘어 귀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들이 가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양상이 경북 지역의 가문 단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연속성이 만주 망명의 역사와도 결부되어 있음은 주목해 보아야 할 현상이다.<sup>14)</sup> 여성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가문 및 사회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가사 문학이 중요한 정서적·언어적 매개물로 기능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가문 내의 남성에게 의해 창작된 <분통가>는 어떠한 소통 양상과 표현 미학을 지닌 작품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 가사 문학의 특징과 의의를 해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 단위 내에서 동일한 체험을 소재로 창작된 두 작품이 기본적인 창작 동기와 주제 의식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현실 인식과 표현 미학의 두 층위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만주 망명 가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14) 김윤희, 「내방가사의 전승 과정을 통해 본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 문화」, 『국학연구』 4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78~82쪽.

## 2. 창작 동기를 통해 본 두 작품의 접점과 거리

(가) 신희년 국화절의 단풍은 비단이오/ 한풍은 소슬하니 원각의 시름일쇠/ 심심하고 술안흔중 병중의 희황하여/ 외석의 혼즈 누어 공부 없슨 저른 글노/ 자기 경덕 더장 기록 타인 불가 남스럽소

(나) 9월 27일 국문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그것으로 비통한 심정을 풀고 부녀자들에게도 내가 전후(前後)로 겪은 곤란(困難)을 알도록 하였다. 대략 역사가의 필법을 본떴는데 이 또한 나의 본령(本領)에 드는 것이다. 뒤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 분통가 후지(後識)

노래라는 것은 시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군신이 서로 화합하던 밝은 시대에 는 갱재가(廣載歌)나 남훈(南薰)의 시를 노래하고, 유리(流離)하고 어지러운 세상에는 서리(黍離)나 채미(採薇)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은 만난 때가 그래서 사람의 성정을 감발한 나머지 이 또한 내용은 같으나 형식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분통가>를 짓는 까닭이다. 그래서 교묘(郊廟)에 모이는 시는 온화하며 장엄하고, 정부(征婦)의 한스러워하는 노래는 슬퍼 마음을 상하게 하니, 이것은 다 쇠망한 세상의 뜻이므로, 갱재가나 남훈 시의 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사변 이후부터 사방에서 호구(糊口)를 하며 혹 시로 분노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서술하고 혹은 노래로 우울하고 답답한 기운을 풀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장가(長歌)가 통곡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도 없고 마디도 없이 다만 천하고 속된 소리를 하는데 불과하니, 버려두어서 휴지나 되게 하든지 단지의 속달게로나 쓰려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진주(珍珠)의 벗 윤상우(尹相佑)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 때문에 종이에 써 달라고 하며 두고 볼 거리를 삼갔다고 하였다. 그 역시 품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미 심한 농담이라고 하여 달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써주고 기록해 준다. 이는 소리와 기운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 (가)는 <해도교거사>의 후반부 내용이고 (나)와 (다)는 <분통가>의 창작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일기에 해당한다. (나)를 보면 1912년 9월 27일에 창작된 <분통가>는 ‘비통한 심정을 풀고 부녀자들에게 곤란을 알도록 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 해인 1913년 6월 4일 일기에는 <분통가>와 함께 ‘후지(後識)’도 기록되어 있다. 이 후지를 보면 <분통가>를 창작한 후 버려두었다가 작품을 종이에 써 달라는 벗 윤상우의 부탁으로 일기에 기록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노래는 시의 일종’이며 ‘소리와 기운이 같은 처지(地)’라는 논리로 창작 동기가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와 노래는 내용은 같으나 형식이 다르고 사람의 성정을 감발하는 것은 동일하여 시 외에 ‘노래’도 창작하여 ‘우울하고 답답한 기운을 풀었다’는 것이 백하가 <분통가>를 창작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가)를 보면 <해도교거사> 또한 김우락이 ‘원객(遠客)의 시름’을 풀기 위해 ‘자기 경력’을 ‘대강 기록’한 작품임이 확인된다. 즉 두 작품이 자신의 시름을 가사로 풀어내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기본적 동기는 유사하지만 백하는 역사가의 필법(筆法)을 본떠 한시(漢詩)에 기반한 자신의 ‘본령(本領)’을 유지하려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를 보면 ‘부녀자들에게 전후(前後)의 곤란한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라는 구절도 보이는데 이는 많은 친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해야 했던 백하의 부담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분통가>를 통해 가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만주 망명의 정당성을 설파하여 심리적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 것도 가사 창작의 주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유의하면서 먼저 두 작품의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습고도 **분통하다** 無國之民 되단말가

우습고도 **憤痛하다** 離親去國 恨단말가

**憤痛**한 일 許多하나 니릴 더욱 **憤痛**하다

二氣五行 聚精하샤 父母님께 稟受할제  
萬物中에 秀出하니 그 안니 貴重한가  
四民中에 선비되니 그 안니 多幸한가  
...

太祖大王 帶礪之盟 億萬年을 期約하고  
太平聖主 만나거던 日月山龍 繡를 노코  
世上이 板蕩커던 死於王事 하자던니  
**庚戌年** 七月變故 꿈일년가 참일년가  
갈도 創도 못 써보고 이地境이 되단말가  
二十八世 宗廟陵寢 香火祭享 누할년고  
三千里內 祖宗疆土 犬羊차디 되단말가  
二千萬人 痛哭소리 젓줄노은 아히로다  
天地가 문어진덧 日月이 晦彩한덧  
五百年을 休養하신 우리 先王 餘蔭으로  
家庭에서 익언見聞 朋友까지 講論하던  
忠孝義烈 넷글字를 간입사에 씩여노코  
교육하고 發達하야 禮樂文物 보자던니  
事業은 蹉蛇하고 歲月은 如流로다  
할이라도 古國生活 갈사록 **憤痛**하다

<분통가>

이몸이 자소시로 호화로 生長하여  
십구의 우귀하니 중〃존당 승한덕턱  
일신이 반석<sup>15)</sup>이오 썩〃한 어린동괴  
선동<sup>16)</sup>이오 옥여로나 익인으로 화우<sup>17)</sup>하고

15) 반석: 반석(盤石). 사물, 사상, 기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선동: 선동(仙童). 선경(仙境)에 살면서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이십이세 생남<sup>18</sup>)하니 존당의 영효되고  
문내<sup>19</sup>)의 대경<sup>20</sup>)이라  
이몸이 녀즈라도 슈천두목<sup>21</sup>) 아니런가  
문내의 연차이셔 별탁<sup>22</sup>)으로 청장<sup>23</sup>)하면  
압한님 뒤한님의 형식도 빗날시고  
간디마다 반겨하고 사람마다 흠양하네<sup>24</sup>)  
...

**경술년 동십월의**

두쌍화초 다보나니 슬하가 적요<sup>25</sup>)하고  
가중이 소령하니<sup>26</sup>) 헛분심사 여광여취<sup>27</sup>)  
진정하긔 어렵도다  
요란한 이세상의 국사가 점 # 위티  
쥬군의 인국지심 업친물을 담을다시  
협회도 한다하고 회장도 한다하니  
마음의 우구<sup>28</sup>)하나 디스의 안여자가  
심너의 두립더니 고유연 춘이월의

17) 화우: 화우(化雨). 교화(教化)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철에 맞추어 오는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18) 생남: 생남(生男). 아들을 낳음.

19) 문내: 문중(門中).

20) 대경: 대경(大慶). 큰 경사.

21) 두목: 두목(竇默). 원(元)나라의 학자.

22) 별탁: 별탁(別擇). 특별히 가려 뽑음.

23) 청장: 청장(淸藏). 맑게 간직함.

24) 흠양하네: 흠양(欽仰).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함.

25) 적요: 적요(寂寥). 적적하고 고요함.

26) 소령하니: 소령(蕭冷)하니. 쓸쓸하고 싸늘함.

27) 여광여취: 여광여취(如狂如醉)미친 듯도 하고 취한 듯도 하다는 뜻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8) 우구: 우구(憂懼). 근심하고 두려워함. 또는 그런 마음.

모진것들 주의<sup>29)</sup>보소 저의잡을 일인가바  
 호언으로 청장하니  
 주의를 아제미는 모면할길 이슬소나  
 ...

삼철니 호강손을 기입의 옛탄말가  
 오졸한 여즈라도 **분울지심** 발하러든  
 하물며 인국지스 **비통지심** 엇들넌고  
 산림제택 바러두고 월국지사 곱히드니  
 철석갓치 굶은마음 뉘라셔 말닐넌고

<해도교거사>

두 작품의 전반부를 보면 ‘**강조 표시**’된 부분에 보이듯 ‘경술년(庚戌年)’의 국치로 인한 ‘분통’, ‘분울지심’, ‘비통지심’ 등과 같은 단어들 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권을 상실하여 조국을 떠난 이 주민으로서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가사를 창작했던 정황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통가>의 경우 ‘무국지민(無國之民), 리친거국(離親去國), 태평성주(太平聖主), 충효의열(忠孝義烈)’ 등과 같은 표현에 보이듯 국가와 역사, 유교 의식 등과 같은 추상적인 층위의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무너진 것은 ‘천지’가 무너진 것과 다름없고 이천만인의 통곡 소리가 마치 ‘젖줄 놓은 아이’와 같다는 구절을 보면 백하는 생명줄이 끊긴 듯한 국권 침탈로 인해 국가와 유교 이념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도교거사>의 경우 자신의 유년기와 결혼 후의 행복했던 시절을 길게 회고하는 방식으로 전반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몸이 녀즈라도 슈천두목 아니런가’, ‘간디마다 반겨하고 사람마다 흠양하네’ 와 같은 구절에 보이듯이 김우락은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여 퇴계 가문으로 시집 간 삶

29) 주의: 주의(主意). 주된 생각. 요지.

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먼저 떠올리고 있다. 현실은 비록 국경을 넘어 임시로 거처하는 ‘교거(僑居)’의 삶이지만 지나 온 생의 궤적을 가사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정체성을 환기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삶에 대해 ‘萬物中에 秀出하니 그 안니 貴重한가/ 四民中에 선비되니 그 안니 多幸한가’로 간략히 정리한 백하의 경우와도 대비된다.

경술년 국치에 대해서도 김우락은 ‘쥬군의 인국지심 … 철석갓치 굳은 마음 뉘러서 말닐넉고’에서와 같이 남편을 염려하고 결단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교 이념에 의한 결과이지만, 국가와 유교라는 추상적 층위로만 인식이 수렴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볼 예정인데 이에 앞서 마치 두 작품의 교집합과 같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南走越 北走胡에 四面八方 살펴보니  
 그리히도 난은곳디 長白山下 西間島라  
 檀祖當年 開國處요 句麗太祖 創業地라  
 決定하고 斷定하야 勇往直前 하자할제  
 八世邱隴 香火所탈 弟姪의게 付託하고  
 冬溫夏涼 好家舍를 헌신갓치 버려노코  
 南田北畚 祖先世業 紙貨한줌 바다너코  
 九十當年 猶父兄을 열줄걸로 하직호고  
 白首之年 왜냐동싱 生離死別 찢쳐노코  
 梁山令公 處義할제 산鬼神을 치하하고  
 李司諫의 봄을바다 우습으로 도상하고  
 李侍郎과 李上舍난 열결句로 薤歌하고

至情切戚 다더디고 越獄逃亡 하덧하니  
 淚水가 압흘막가 白日이 無光이라  
 洞口박글 썩나올제 머리둘너 다시보니  
 山川이 어두은덧 草木이 슬피한덧  
 아무려도 생각하니 가난거시 良策이라  
 漠漠江天 汾浦거리 再從叔姪 이별하고  
 갈곳갓치 맘을먹고 활살갓치 압흘서서  
 氣色업시 가난곳디 栗城查頓 門前이라  
 孫女난 삼이잡고 孫婿난 압흘막가  
 痛哭하며 怨望 하며 白首尊顏 언제볼고  
 木石肝腸 안니거던 子孫之情 업살손가  
 草木禽獸 안니거던 慈愛之心 업살손가  
 已發之勢 無奈何라 다시오마 빨잇치고  
 七年之年 查兄弟를 城싸귀에 흐딕히고  
 여셔가자 빗비가자 汽車우에 올라선니  
 千里길이 디척이오 萬事萬念 그만니라

<분통가>

썩나괴를 돈정<sup>30)</sup> 하니 각거한 동괴질아  
 단취<sup>31)</sup> 함을 원횿터니 괴약업산 영결<sup>32)</sup> 일세  
 사문의 통곡하고 산천의 눈물썩려  
 영결노 썩나가니 푸른솔이 거머지고  
 바른남기 구버지네 일사의 슬픈두건  
 먼산을 너머오네  
 일색이 참담하여 히든바휘 거머지니

30) 돈정: 돈정. 자리를 잡아서 확실하게 정함.

31) 단취: 단취(團聚).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32) 영결: 영결(永訣).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촌〓이 여절이오 지향이 어디미노  
구담쥬점<sup>33)</sup> 다〓르니  
손서의 화월지용 계와셔 기다리네  
망정이 의〓하고 누수<sup>34)</sup>난 여우하여  
간장이 쫓쳐지네 토목갓한 처가향염  
괴특하고 걸니여라 류실의 어린간장  
셔러〓〓 하난모양 심목의 의〓하여  
촌〓<sup>35)</sup>간장 다늑난듯 봉되<sup>36)</sup>랄 다〓르니  
강실의 슬픈눈물 정〓치 못하난  
상<sup>37)</sup>췌치고 도라션니 슬푸다 내마음이  
엇지이리 모지든고 아득한 이심회를  
뉘라셔 알단말고 쥬풍영 너머갈계  
쥬족갓흔 우리하인 영결노 들일적의  
조히가셔 잘살아라 저의들도 인심이라  
통곡하고 도라셔니 심신이 아득하여  
걸가누키 어려워라

<해도교거사>

두 작품은 만주까지의 여정을 인식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매우 유사한 표현과 형상화 특질이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장면이다. 위의 두 인용문이 이에 해당하는데 만주까지의 일정을 회고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바로 고향을 떠나며 친족들과 헤어지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하는

33) 구담쥬점: 구담의 주점

34) 누수: 누수(漏水). 눈물.

35) 촌촌이: 촌촌(寸寸)이. 갈기갈기.

36) 봉되: 상주(尙州)의 봉대(鳳臺).

37) 상: 상(像). 모습.

서간도로의 이주를 확정한 것에 대해 ‘開國處요 句麗太祖 創業地’라는 역사적 명분을 내세우고 ‘李司諫, 李侍郎, 李上舍’와 같이 안동에서 자정 순국을 택한 이들을 기억한다. <해도교거사>는 이러한 내용 대신 안동 지역의 역사와 절경(絶景)이 구체화된 부분이 보이는데 고국을 떠나는 심회를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한 부분부터는 형상화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山川이 어두은덧 草木이 슬피한덧’, ‘일색이 참담하여 히든바회 거머 지니’와 같은 표현의 유사성에 이어 ‘손녀(孫女)’와 ‘손서(孫婿)’를 만나는 장면에는 두 작품 모두 슬픔의 표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백하는 ‘칼끝 같이 마음을 먹고 ‘화살’처럼 앞을 향해야 했다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손녀와 손서가 소매를 잡고 앞을 막아 통곡하며 ‘백수존안(白首尊顏) 언제볼까’라고 하니 ‘木石肝腸 안니거던 子孫之情 업살손가/ 草木禽獸 안니거던 慈愛之心 업살손가’라는 대구를 통해 극한의 슬픔과 고뇌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독립운동가이자 만주 망명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로서가 아닌, 혈연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백하의 인간적인 내면이 <분통가>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부분인 동시에 <해도교거사>와 가장 접점을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동일한 순간에 대해 김우락 또한 ‘망정이 의의하고 누슈난 여우하여’, ‘셔러셔러 하난모양 심목의 의의하여 춘춘간장 다녹난 듯’과 같이 표현하며 이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심회를 ‘엇지 이리 모지든고’라고 탄식하고 있다. 김우락은 만주에서도 이들과 가사를 주고 받으며 그리움을 달랬을 정도로 각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작품은 만주 망명의 과정을 회고하며 울분을 표출하고자 한 기본적인 창작 동기가 유사하고 특히 고향을 떠나며 가족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형상화된 장면에서 가장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반에 걸쳐 <분통가>는 남성으로서 중시했던 유교 관념이나 역사 의식

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교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반면 <해도교거사>는 장면의 구체성이나 형상화의 꺾진성 등이 두드러진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표현 미학의 차이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 3. 경계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그 표현 미학의 차이

(라) 力車 내려 汽車타고 가난 곳디 **新義州**라/ 鬱乎 蒼蒼 龍灣浦난 宣祖大王 駐蹕處오/ 우리 先祖 勤王 訶신 御史行臺 愴感하다/ 鳳凰城과 吉林省에 從某至某 다다르니/ 雨萍風絮 根着 업시 안는 곳디 너딕이라/ **柳河縣과 通化縣**에 上下四方 돌너보니/ 鴨綠江과 松花江은 左右로 돌너 잇고/ 太白山과 白頭山은 虎踞龍蟠 摩天 訶데/ 高麗村과 盖年城은 英雄壯蹟 曠感하다/ 遼城 城郭 이건만은 古都人物 어디 간고/ 伯夷叔齊 찾자히도 山이 늙과 못오을네/ 魯仲連을 팔차히도 바다 머러 못갈네라/ 鄉曲腐儒 拙手分이 射不穿札 어이 홀고/ 七十前程 얼미런고 河水 말기 보지손가/ 하릴 업서 憤鬱 홀세 大言張膽하여 보시/ 吾夫子의 春秋筆로 沐浴請討하을 적에/ 宗室大臣 內部大臣 兇逆黨에 大書하고/ 開門納賊 멧멧 놈은 奸黨篇에 실어 너고/ 皇天后土 昭告 하샤 忠逆黨을 剖判訶 후/ 西小門外 處斬當튼 洪在學과 再拜하고 / 海牙談判 피홀이든 李俊氏를 痛哭하고/ 鐘樓거리 칼딜訶던 李在明을 賀禮하고/ 哈爾濱을 바라보고 安重根에 酌酒하고/ 閔永煥답 더 구경과 崔益鉉의 返魂길 에/ 上下 千載 돌너보니 古今 人物 다할손가/ 楚漢三國 英傑하다 東國史記 더욱 壯타

(매) 길가기 지리터니 저근덧 **신의주**라/ 나가려니 화광은 총총여 왕왕이/ 거문 비치 양안의 어릿기여/ 어더로 향잔말고 아즈난 인도하고/ 질이난 부익하여 정신이 황난터니/ 어디서 듯든소래 먼저오신 우리주군/ 계와서 기다리네 이제 야 사랏고나/ 신효석집 지휘訶여 엄평덤평 차자가니/ 가옥이 정벽하고 공괘

가 홀용한테 일쥬야를/ 계셔쉬고 압눅강을 건너서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감창  
지회 업슬손가 고국을/ 회수하리 기회가 아득하여 가슴의 박히여라/ 저의숙질  
바리고서 월국할줄 누알소나/ 심중의 병이되어 쥬야로 고통이나/ 저의엇지 알  
겟스라 슬푸다 니일이야/ 진몽인가 취몽인가 아마도 쏘이로다/ 동취잔 늘근안  
히 인후하고 다정하여/ 육강<sup>38)</sup>을 자로쥬어 말니객지 이런사람/ 엇지하여 쉽  
겟스라 낙지를 차자가며/ 공연한 비스고이 무익하고 부지럽네

올사록 광활하다 첩첩이 싸인산이/ 험중치 아니하고 그림으로 셔렸스니/ 한  
인니 드러와서 명인이 나리로다/ 우마쑹 돼지쑹을 더럽다 하지마오/ 마조문명  
하였스면 이철니 만쥬싸이/ 우리기에 도라올가 옛글에 일럿스디/ 지청지쥬<sup>39)</sup>  
무어라니 텃 "한 그가온디/ 싸인것이 물화로다 어와 회중분님/ 영웅열스 동심  
합역<sup>40)</sup>터라 사업 다 흐시고/ 북국명인 되압시오 역 "하다 우리향국/ 인걸은 지  
령이라<sup>41)</sup>사람마다 영웅준걸/ 망국인중 불상하다 심중의 헤아리며/ 하로보고  
오전오니 **영춘원**을 왓단말가/ 슬푸다 나의 험담지 어디가 찾잔말고/ 식고쥬이  
마조나와 드러가즈 간청하니/ 산실이라 험섭하여 아모리 사양하나/ 그여이  
마즈드려 부모갓치 더접하니/ 감스한중 불안하나 말니객지 슈란중의/ 지  
정<sup>42)</sup>이 함께와서 우리유익 되단말가/ 직회랄 잇겟고나 실중의 드러가니/ 향  
취가 가득하여 그아히 거동보니/ 괴상은 통봉이오 골격은 형옥이라 /지정간  
이런경스 든 "하고 치하<sup>43)</sup>롭다/ 고생을 낙을삼고 염반<sup>44)</sup>을 감식<sup>45)</sup>하여/ 만  
더영화 즈기하시 어린손여 다리고셔/ 을하면 죽이되고 엇던썩면 생밥지니/

38) 육강: 육갱(肉羹). 고깃국.

39) 지청지쥬: 지청지쥬(至淸至粹). 지극히 맑고 순수함.

40) 동심합역: 동심합력(同心合力).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음.

41) 인걸지령(人傑地靈): 땅의 기운을 받아 훌륭한 인물이 남.

42) 지정: 지정(至情). 가까운 친척.

43) 치하: 치하(致賀). 고마움과 칭찬의 뜻을 포함.

44) 염반: 염반(鹽飯). 소금을 반찬으로 차린 밥이라는 뜻으로, 반찬이 변변하지 못한 밥을 이르는 말.

45) 감식: 감식(甘食). 맛있게 먹음.

둘집소슬 몇사람이 솟가의 들너서 // 밥하난법 의논하니 식고종이 가라치니  
/ 두집식구 벽장디소 우습고도 절창이야/ 칠십의 능참봉은 공명이라 하제  
마는/ 육십경역 우습도다

위의 두 인용문을 보면 ‘신의주(新義州)’와 ‘유하현(柳河縣)’이라는 동일한 여정이지만 그 곳에서의 기억을 형상화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분통가>에 해당하는 (태)를 보면 백하는 신의주에서 ‘선조대왕’이 머물렀던 ‘용만포’를 떠올리고 있는데 국권 상실의 설움이 교차되면서 그 감정을 ‘창감(愴感)하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하현’과 ‘통하현’에서 백하는 ‘고려’의 웅장한 자취를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영웅’들을 칭송하고 나열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 보이듯이 분하고 울울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큰 소리로 ‘장담(張膽)’하며 헤이그 특사의 ‘이준’과 당대의 항일 의사였던 ‘이재명, 안중근, 민영환, 최익현’ 등이 열거되고 이어 김유신, 최치원, 을지문덕 같은 역사의 ‘열사충신(烈士忠臣)’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의식은 김우락의 남편이었던 석주 이상룡이나 함께 망명한 류인식, 이원태 등의 저술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안동에서 만주로 이주한 이들은 만주를 독립 운동의 기지이자 국권과 민족사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했음<sup>46)</sup>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도교거사>에서 신의주와 영춘원에서의 기억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태)의 밑줄 친 부분에 보이듯이 김우락은 신의주에서 남편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포와 추위에 떨며 국경에 다다랐을 때 ‘황난’했던 정신은 ‘우리 주군’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야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으로 변화되었고 김우락은 이러한 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록강을 지나 묵었던 숙소 ‘동

46) 박결순, 『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12, 273~310쪽.

취잔'에서 늙은 아내가 고깃국을 자주 내어 주었던 '인후(仁厚)하고 다정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만주로 망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각인된, 사소해 보이지만 유의미한 사건을 회고하는 방식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는 <분통가>의 경우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춘원'은 '유하현'에 위치한 곳인데 이 곳에서도 김우락은 '시고 종'이 마중을 나와 부모처럼 대접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환기하고 있다. 친척들이 모이니 반찬이 없는 '염반(鹽飯)'도 맛이 있고 어린 손녀와 밥을 하다 보니 죽이 되거나 생밥을 짓게 되어 모여 밥 짓는 법을 함께 고민하며 '박장대소(拍掌大笑)'하는 모습을 가사에 담아내었다. '고생을 낙을 삼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낯선 타국에서 느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친족과 밥을 함께 해먹는 일상적인 행위마저도 소중한 삶의 한 장면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삶의 장면을 의미 있게 발견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의 감수성은 <해도고거사>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시각이며 이는 남성 작인 <분통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sup>47)</sup>

백하는 위의 장면에 이어서도 다른 여정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고구려의 안시성 사건부터 조선시대의 임병양난 등 국권 찬탈의 위기에서 활약한 영웅들을 나열한 후 국권 회복을 상상하고 염원하는 결사를 통해 <분통가>를 끝내고 있다. 특히 이 결사에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라는 방식을 넘어 국권 회복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는 방식이 보여 흥미롭다.

淸區宇 하온후에 自由鐘을 울니치며/ 오던길로 도라서서 凱歌하며 춤을추  
니/ 二千萬人 歡迎소리 地中人也 起舞한듯/ 宇宙에 빛치나고 日月이 開朗한

47) <해도고거사>의 분량은 대략 335행 정도이고 <분통가>는 186행인데 이러한 분량 차이도 이러한 현실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덧/ 英美法德 上等國에 上賓으로 올나안자/ 六大洲와 五大洋에 號令하고 吞  
壓하니/ 筐篚玉帛 四時節에 海船山梯 朝貢바다/ 天地鬼神 祭享하고 太平宴  
을 排設하사/ 忠臣烈士 다 모도여 次第로 論功할제/ 大砲안쳐 死節功臣 東草  
代人 酌酒하고/ 指揮方略 都元帥 第一等에 勳號하고/ 麒麟閣에 圖形하고 太  
常旗에 일름쓰니/ 攻成身退 옛말이라 少年學徒 勸戒 하고/ 深衣大帶 舊文物  
로 某水某邱 차자가니/ 父老宗族 情話할제 風雨戰場 예말이라/ 海晏河平 熙  
皞世에 堯舜世界 다시보니/ 憲法政治 共和政治 時措之義 싸라가며/ 福을바  
다 子孫주고 德을짜가 百姓주고/ 壽考無疆 安樂太平 참말삼아 두고보세/ 長  
歌甚於 慟哭이오 大笑發於 無奈何라/ 憤痛코도 快活하다 青年學徒 드러보  
소/ 青春이 더이없고 白髮이 於焉이라/ 日征月邁 時習하여 人一能之 己百之  
라/ 아무려도 雪恥하야 大韓帝國 보고디고

<분통가>

이와 이내몸이 청춘소연 어제러니/ 육십지연 늦거워라 이몸어이 다시절며/  
영웅열사 모으신디 독입국권 쉬유려니/ 아모리 녀즈라도 잇디한번 쾌설코져/  
빅슈노인 우리쥬군 만세만세 만만세야/ 명만천 하압시고 만인지상 되압시며/  
북궁공신 되압시와 천만세 무궁토록/ 만디영웅 될지어라 여룡여호 자실들아 /  
나타지심 먹지말고 부모의기 영효하라/ 룡호갓흔 사회손서 영화복록 장원하라  
…<이하 훼손><sup>48)</sup> 육궁지상 되어서니 고인을 효측허라/ 뉴란흔 너히종반  
세계각국 일흠 두어/ 일등공신 되어서라 노모축원 여합허라/ 어와 우리 여  
즈 이전(으로) 보게되면/ 심규의 드러이서 숙형을 기리 짝가/ 광평천지 너른  
세상 지형을 모르다가/ 불헝흔 풍진세계 삼철이 동서남북 가림업시 구경허  
고/ 고상도 잇거니와 호강을 상반하여 남은 혼이 이슬소나/ 남손은 늘그나  
마 우리는 늘지 말고 빅세히로 허다가셔/ 호시괴가 닷지거든 귀국하시 귀국  
하시

<해도교거사>

48) 안동에서 공개된 <해도교거사>의 경우 작품의 후반부가 누락되어 있는데 성호경 선  
생님이 공개하신 이본에는 확인이 되어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추가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두 작품의 결사에 해당하는데 <분통가>를 보면 ‘자유’가 주어진 후 다시 귀국하여 ‘이천만인이 환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영미법국(英美法德)의 상빈(上賓)’으로 올라 ‘육대주(六大洲)와 오대양(五大洋)에 호령(號令)’하는 호기로운 상상이 보인다. 충신열사들이 다 모여 공을 논하는 ‘안락태평(安樂太平)한 ‘요순(堯舜)세계’를 그려보는 이러한 문학적 발상은 ‘긴 노래가 통곡보다 더 심하고 큰 웃음은 어찌할 수 없는 데서 나온다(長歌甚於 慟哭이오 大笑發於 無奈何라)’라는 구절로 수렴되면서 불가능한 상상만이 어쩔 수 없는 비극을 견디게 하는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분통가의 후지에서 백하는 이 구절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핵심 동기임을 밝혔듯이 <분통가>는 극한의 통곡을 표출함과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분통(憤痛)코도 쾌활(快活)하다’는 역설적 표현도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청년학도(靑年學徒)’들이 노력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재건하는 ‘영웅’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식은 희망을 향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도교거사>의 후반부에도 ‘여자’이지만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싶은 의식이 ‘아무리 너즈라도 잇디한번 쾌설코져’라는 구절에 보인다. 특히 ‘우리 주군’이 ‘복국공신(復國功臣)’이 되어 만대영웅이 되고 후손들이 노력하길 바란다는 내용에서 남편 이상룡의 의식과 활동을 지지했던 김우락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여자의 삶이 보통 ‘심궤(深閨)’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만주 망명을 통해 광명천지의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불행한 시대가 준 ‘호강’이라고 지적하면서 척박한 망명지에서 고생하는 주위 여성들을 독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산은 늙더라도 ‘우리’는 늙지말고 좋은 시기가 오면 ‘귀국하자’는 마지막 구절 또한 가사가 당시 여성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며 희망을 말하던 방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도교거사>는

주위 여성들이 독자로 상징되어 창작되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희망을 말하는 방식 또한 관념적인 상상의 방식에 기반한 <분통가>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새롭게 발견된 김우락의 만주 망명 가사 <해도교거사>와 김우락의 오빠였던 김대락이 비슷한 시기에 지은 <분통가>의 창작 동기와 문학적 특질을 비교해 보았다. 두 자료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현실 인식과 표현 미학의 접점과 차이에 주목해 보았는데 실상 만주 망명이라는 극단의 선택과 고난 속에서 가사 문학을 통해 내적 고뇌를 발산하고 소통하면서 현실을 견디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 문학은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종교적 혹은 기타의 견해들을 대중 속에 전파하는 장치의 일부였으며 그 이점은 <①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메시지 전달 ②필사본이나 암송 등과 같은 가사 유통의 다양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케 함 ③가사의 미학적 호소력으로 설득력이 확보됨>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근래의 논의<sup>49)</sup>는 이런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조선후기 가사 문학은 현실과 조응하는 적극적인 매개체로 기능해 왔는데 일제 강점기와 만주 망명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사는 그 미학적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갈래임이 두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해도교거사>와 <분통가>는 일

49) 보데웬 왈라벤(Boudewijn Walraven), 전승희 역 『가사, 소통 그리고 여론』, 『창작과 비평』 46(2), 창작과비평사, 2018, 317~319쪽.

제의 탄압을 피해 모국어 문학 양식을 통해 현실을 개탄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고자 했던 역사 의식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고국에서 향유했던 전통적인 기록 문화 방식을 통해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고 설득해 가면서 더 나은 세계를 함께 희망했으며 가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언어적·정서적 매개물로 기능했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단지 내적인 탄압을 토로하기 위해서만 가사를 창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과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주변인들과 연대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해도교거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만주 망명이나 독립 운동의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평가되어 온 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보완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주 망명의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된 여성들의 역할과 기록 문화의 의미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점차 복원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박문사, 2014, 1~363쪽.
-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1~324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505쪽.
-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 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5~29쪽.
- 고순희, 『만주 독립운동가 김대락의 <분통가>』, 『오늘의 가사문학』 13, 고요아침, 2017, 62~70쪽.
- 김윤희, 『안동의 여성 독립 운동가 김락의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22,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 연구소, 2017, 93~117쪽.
- 김윤희, 『내방가사의 전승 과정을 통해 본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 문화』, 『국학연구』 4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69~98쪽.
- 박결순, 『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12, 273~310쪽.
- 성호경·서혜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해도교거사>·<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46집,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쪽.
- 정연정·천명희, 『고성 이씨 소장 『해도교거사』의 국어학적 가치』, 『어문논총』 제 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9~32쪽.
-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슬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7~106쪽.
-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와 분통가』, 『안동역사의 유교성향(于史 趙東杰 저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248~250쪽.
- 보테웬 왈라벤(Boudewijn Walraven), 전승희 역 『가사, 소통 그리고 여론』, 『창작과 비평』 46(2), 창작과비평사, 2018, 317~319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churian Exile Gasa  
<Haedogyogeoosa> and <Buntongga>  
— Focusing on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and Male Authors and Cultural Meaning

Kim, Yun-hee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Haedogyogeoosa>, a recently identified Manchurian exile gasa, with <Buntongga>,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way the female and male authors perceived reality and expressed their perceptions in the form of a gasa while living in the border area of Manchuria.

This study focused on the points of contact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uthors' perceptions of reality and expressive aesthetics, in order to approach the two works in a more three-dimensional way. However, the two works basically share commonalities in that the authors strove to endure their harsh reality by converting their agony into the gasas and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in the midst of the extreme situation that forced them to exile to Manchuria and all the subsequent sufferings.

However, <Buntongga>, which was created based on Confucian notions or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were valued among men, mainly features didactic and abstract expressions, whereas <Haedogyogeoosa>, which addresses to female readers around the author, shows differences in the way of expressing the hope of national independence compared with <Buntongga>, which is based on ideological imagination.

The differences seen in the two work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allow us to examine,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and in a complimentary way,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authors who tried to share their aspiration for national independence with others and society at the same time, as well as to express their inner sufferings.

**Key Words** <Haedogyogeosa>, <Buntongga>, Manchurian Exile Gasa, Border rider,  
Woman, Man

논문투고일 : 2020.04.22

심사완료일 : 2020.05.13

게재확정일 : 2020.05.17